

벤자민 워필드의 성경론 이해 : 과학시대에서의 해석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김상엽

(백석예술대학교, 외래교수, 조직신학)

- I. 들어가는 글
- II. 워필드의 성경론과 그 해석학적 함의
- III. 나가는 글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벤자민 워필드(Benjamin B. Warfield, 1851-1921)가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입장이 오늘날 개혁신학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학적 함의를 주는지 도출하는 데 있다.

워필드의 원칙에 따르면 성경의 무오성을 지지한다고 반드시 성경 본문에서 과학적인 세부사항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 무오성은 과학 교과서와 같은 정밀함을 요구하지 않고 정확함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이 과학 등에 대해 진술할 때, 그것이 실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올바른 해석학이 필요해진다.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성경 본문의 장르를 이해하는 것이다. 워필드가 장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문체나 어휘, 표현양식, 현상 등의 개념을 통해 워필드는 장르 파악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워필드는 성경 영감에서의 “협력” 개념을 과학에 대한 이해에 적용한다. 성경의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협력” 개념을 통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자연세계의 자연적 과정이 협력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통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워필드가 성경과 진화론의 관계에 대해 제시한 입장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마크 놀의 지적처럼 성경과 진화에 대한 워필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학과 과학 사이의 “훨씬 더 만족할만한 작동관계”를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워필드의 논의를 통해 개혁신학적인 성경론을 고수하면서도 열린 태도로 과학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벤자민 워필드, 성경론, 성경 무오성, 과학, 진화, 해석학

논문투고일 2022.01.06. / 심사완료일 2022.02.24. / 게재확정일 2022.03.07.

1. 들어가는 글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학과 성경,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다양한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 위에서 과학이나 일반 학문에 대한 태도를 다시금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해준다.

먼저,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과학 자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2020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학 발전이 종교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50%의 개신교인이 ‘그렇다’라고 답했다.¹ 이는 가톨릭교인 39%, 불교인 47%, 무교인 4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20-30년 후 미래 사람들의 종교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질문에 개신교인이 가장 높은 긍정 지수를 보였다. 보고서는 북미와 유럽의 사례를 지적하며 과학적 지식의 발달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신앙과 과학을 대립관계로 보는 개신교에서 과학으로 인해 종교심이 약화될 것이라는 대답이 더 높았다는 것은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 <2019년 주요사회연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보면 성경 무오성과 성경 문자주의를 고수하는 개신교인 비율이 모두 55%를 넘는다.² 반면에 진화론을 반대하는 개신교인 비율도 53%에 이른다. 진화론을 반대하는 비율도 타종교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었다. 성경 문자주의와 성경 무오성이 과학이나 진화론에 대한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³

*이 논문은 2021년 11월 2일 개혁주의학술원에서 주최한 제16회 종교개혁기념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스」 75 (2020년 12월): 7.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26. (2021년 9월 23일 접속)

2 신익상, “개신교인의 신앙관과 생태위기에 관한 인식,” 『기독교사상』 731 (2019), 8-25.

3 물론 “성경 무오성”에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필자는 이 실험의 목적에 따라 근본주의적 성경 무오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워필드가 말하는 성경 무오성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선을 우리나라 밖으로 돌려도 비슷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퓨 포럼(Pew Forum)이 2014년에 행한 한 설문조사는 성경과 진화론에 대해 미국 개신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상관관계를 다뤘다.⁴ 우선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의 경우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 진화론⁵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38%였다. 이는 가톨릭의 66%, 불교의 86%, 무신론자 8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였다. 개신교인 중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룹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비율(36%)은, 성경을 비문자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룹의 비율(61%)보다 낮았다. 또한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는 사람들의 경우 41%만이 진화론을 받아들였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77%가 진화론을 받아들였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복음주의권에 속할수록,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진화론에 대한 수용력이 떨어졌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⁶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인정하고 과학을 배척하는 것이 마치 개신교인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작동한다.⁷ 다시 말해서 성경과

4 <https://www.pewforum.org/religious-landscape-study/views-about-human-evolution> (2021년 10월 18일 접속).

5 이 조사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진화론을 제시한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진화, 알 수 없는 진화이다.

6 그밖에 참고할만한 보고서로는 하민수, “진화개념의 역사에 근거한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진화개념 수준 비교,”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7/4 (2017), 659-668. 이 연구에 따르면 진화론에 대한 수용 정도와 종교성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 중에서 생물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구분하여 네 집단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한국과 미국, 생물 전공과 비전공이라는 특성에 따라 결과값이 조금씩 상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계산할 경우, 창조론을 수용한 집단의 경우 종교성은 6점 만점에 4.61, 목적론적 진화론을 수용한 집단의 경우 종교성은 2.10으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자연선택적 진화론을 수용한 집단의 경우 종교성은 -0.45에 이르렀다. 윤신일·오세일, “한국 근본주의 개신교인의 ‘4대 혐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5/1 (2021), 39-88은 비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주제를 연구했다. 이 연구는 소속 교단과 신앙적 열심에 따라 진화론과 동성애, 공산주의, 이슬람에 대한 혐오도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적 열심이 높을수록 네 가지 항목에 대해 혐오도가 증가했다. 물론 이 연구에서 성경에 대한 관점이 구체적인 실험 변수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근본주의를 규정하는 가운데 성경 무오성이나 성경 문자주의가 핵심 특징으로 언급된다. 따라서 필자가 이해하기에 이 실험은 성경 무오성과 문자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혐오도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경 무오성과 문자주의, 보수교단, 신앙적 열심과 진화론 등에 대한 혐오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7 한국 개신교는 아니지만 영국과 미국의 개신교인들 내에서 그러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에 관한 연구로는, Amy Unsworth & Elaine Howard Ecklund, “Evangelicals, Evolution,

과학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치르게 될 신앙적·사회적 대가는 너무도 크다.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과학적 업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잃게 될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성경적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교회의 신앙과 신학은 한국사회로부터 점점 계도화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과학 때문에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을 고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과학을 배척하게 된다면, 그 또한 큰 손실이자 오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성경론을 토대로 과학을 합리적이고도 열린 태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서 벤자민 워필드(Benjamin B. Warfield, 1851-1921)가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입장이 오늘날 개혁신학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학적 함의를 주는지 도출하고자 한다. 워필드는 신학과 과학 사이의 조화를 위해 노력했던 신학자였다.⁸ 또한 워필드는 지난 100년 동안 보수적인 입장의 성경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개혁신학자인 동시에, 과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신학자이다. 물론 워필드가 활동했던 19-20세기에 주된 과학적 도전은 진화론이었기에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성경과 진화 사이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⁹ 하지만 워필드가 성경과 진화론의 관계에

and Inerrancy: A Comparative Study of Congregational Boundary Work,”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36 (2021), 199-221.

8 Hendrik van den Belt,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Truth and Trust* (Leiden: Brill, 2008), 227; Mark A. Noll, *The Princeton Theology 1812-1921: Scripture, Science, and Theological Method from Archibald Alexander to 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289.

9 워필드가 활동했던 당시의 주류 과학은 진화론이었다. 그러므로 워필드가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말할 때 진화론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워필드가 진화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는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프레드 재스펠(Fred G. Zaspel)에 따르면 워필드가 말한 유신 진화론은 오늘날의 유신 진화론과 상당히 다르다(J.

대해 제시한 입장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¹⁰ 마크 놀(Mark Noll)의 지적처럼 성경과 진화에 대한 워필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학과 과학 사이의 “훨씬 더 만족할만한 작동관계”를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¹¹

워필드가 하나님 품에 안긴 해가 1921년이므로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지 100여년이 지났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워필드의 시대보다 과학이 더 강력한 시대정신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어떤 형식으로든 발생할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과학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정반대 편에서는 무신론자들이 자연주의적 과학관을 바탕으로 신에 대한 질문 자체를 부정한다. 이러한 양극단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과학의 발전을 조화시키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¹²

P. Moreland, Stephen Meyer, Christopher Shaw, and Wayne Grudem, eds. *Theistic Evolution: A Scientific,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Critique*, 소현수 외 공역, 『유신 진화론 비판』, 총2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2:507-32). 마크 놀(Mark A. Noll)에 의하면 워필드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의 생물들의 진화적 변형을 인정하지만, 자연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이고 비목적론적인 고전적 다윈주의를 버렸다(Benjamin B. Warfield, *Evolution, Scripture, and Science: Selected Writings*, eds. Mark A. Noll and David N. Livingstone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0], 32-43). 워필드의 신학 여정에 있어서 후기에 가까운 1911년에 쓰인 글에서 워필드는 진화론을 검증된 과학 이론이 아니라 “철학”이나 “가설”로 규정한다(Benjamin B. Warfield, “On the Antiquity and the Unity of the Human Race,” in *The Works of Benjamin B. Warfield*, 10 vols. [1932. Rep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9:235-258). 워필드는 진화론이 정당한 과학 이론으로 입증 되더라도 성경 본문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지, 진화론을 입증된 과학 이론으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10 Van den Belt,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204.
- 11 Mark A. Noll, “Introduction,” to *Evolution, Science, and Scripture*, 14. 워필드가 그 당시 현대과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녔다는 언급은 Moisés Silva, “Old Princeton, Westminster, and Inerrancy,” *B. B. Warfield: Essays on His Life and Thought*, ed. Gary L. W. Johnson (Philipsburg, NJ: P&R, 2007), 85.
- 12 워필드는 이러한 양극단을 피하고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성경 무오성의 토대 위에서 좀 더 균형 있게 보고자 노력했다. 워필드 시대의 양극단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것은 본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극단은 과학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신학을 과학화 시키려는 작업이다. 대표적으로 워필드는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했던 오토 플라이더러(Otto Pfeleiderer, 1839-1908)의 “과학적 신학”을 비판했다. 워필드가 보기에 그것은 신학을 진화화 시키는 작업에 불과했다(Warfield, “Creation, Evolution, and Mediate Creation,” in *Evolution, Science, and Scripture*, 198-99). 두 번째 극단은 성경 문자주의로 인해서 성경 본문에서 세부적인 과학 정보들을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 신앙과 과학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워필드의 시대보다 더 중요한 변증적 과제일지도 모른다.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에 따르면 “최고의 변증자는 ... 해당 문화의 언어로 말하고, 그 문화의 관심사를 그 문화가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¹³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과학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II. 워필드의 성경론과 그 해석학적 함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마크 놀은 성경과 진화에 대한 워필드의 입장을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킨다. 마크 놀에 의하면 워필드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과 과학 사이의 “훨씬 더 만족할만한 작동관계”를 보여준다.¹⁴ 반 덴 브링크(Gijsbert van den Brink)는 워필드와 바빙크의 신학적 사상을 비교하며 워필드와 바빙크 둘 다 세속적인 영역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과학과 정치, 경제 등의 분야를 등한시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¹⁵ 더 나아가서 반 덴 브링크에 따르면 워필드는 “중생한 자가 수행하는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¹⁶ 필자는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여 워필드의 신학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좀 더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찾고자 한다. 먼저 워필드의 성경론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고, 다음으로 그 해석학적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인류의 연대 문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다. 워필드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대주교 제임스 어셔(James Usher, 1581-1656)와 프랑스 예수회 신학자이자 예수회 학교 학장을 지냈던 드니 페토(Denis Petau, 1583-1652)의 영향을 지적했다. 워필드는 이러한 시도에 근거가 부족하고 불확실하다고 못박았다(Warfield, “On the Antiquity and the Unity of the Human Race,” in *Evolution, Science, and Scripture*, 271-72).

13 Alister E. McGrath, *Narrative Apologetics*, 홍종락 역, 『포스트모던 시대, 어떻게 예수를 들려줄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20), 24-25.

14 Warfield, *Evolution, Science, and Scripture*, 14. 워필드가 그 당시 현대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언급은 Silva, “Old Princeton, Westminster, and Inerrancy,” 85.

15 Gijsbert van den Brink, “On Certainty in Faith and Science: The Bavinck-Warfield Exchange,” *Bavinck Review* 8 (2017), 65-88, 특히 67.

16 Van den Brink, “On Certainty in Faith and Science,” 85.

1. 워필드의 성경 무오성

먼저 워필드의 성경 무오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워필드는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성경의 권위가 강력하게 도전받던 시기에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을 지켜낸 탁월한 신학자였다. 박용규는 워필드를 “보수적이면서 학문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신학자로 묘사하며, 성경론에 대한 공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평가한다.¹⁷ 반 덴 벨트(Van den Belt)에 따르면 워필드는 그 당시 성경 무오성에 관하여 매우 영향력이 컸던 개혁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¹⁸ 오늘날 미국에서 워필드를 연구하여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학자 프레드 재스펠(Fred Zaspel)은 교회사에 등장했던 주요 신학자들의 계열에 워필드를 올려놓는다.

교회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불러 그분의 말씀을 표현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와 은혜를 말한 신학자였다. ... 안셀무스는 속죄를 말한 신학자였다. 루터는 칭의를 말한 신학자였다. 칼빈은 성령을 말한 신학자였다. ...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워필드는 영감을 말한 신학자였다.¹⁹

지난 100년 동안 워필드의 성경론이 복음주의 성경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케빈 밴후저(Kevin Vanhoozer)는 워필드의 성경론을 “공인된 견해”로 표현하며 이 점을 지적한다.²⁰ 워필드가 대략 100년 전에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성경론은 19세기에 이어 20세기까지 그 영향력을 이어갔다. 타이도 치노(Taido Chino)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워필드

17 David F. Wells, 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박용규 역·해제, 『개혁주의 신학: 현대 개혁주의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11.

18 Van den Belt,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179.

19 Fred G. Zaspel, *Warfield on the Christian Life: Living in the Light of the Gospel* (Illinois: Crossway, 2012), 25.

20 Kevin J. Vanhoozer, *First Theology*, 김재영 역, 『제일신학』 (서울: IVP, 2017), 197.

와 칼 바르트(Karl Barth)의, 두 가지 반대되는 성경론을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든 두 사람의 성경론이 지난 100년 동안의 성경론 논의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평가했다.²¹ 이승구에 따르면 워필드는 성경 무오성에 관하여 강력한 변증을 시도함으로써 그 당시 학계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²² 재스펠은 지난 세기 성경의 영감과 무오에 관한 모든 논의는 워필드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그를 “영감의 신학자”로 표현했다. 이는 화이트헤드(Whitehead)가 서양철학이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²³

그렇다면 워필드가 주장한 성경 무오성은 어떤 의미였을까? 워필드의 이러한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밀라드 에릭슨(Millard J. Erickson)이 제시하는 7가지 성경 무오성 입장 중에서 3가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²⁴ 에릭슨은 절대적 무오성과 완전 무오성, 제한적 무오성을 말한다. 절대적 무오성은 성경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를 담고 있다고 본다. 완전 무오성에 따르면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과학책과 같은 수준으로 전달하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한 언급에 있어서 성경 본문이 의도한 수준에서 전적으로 참되다. 제한적 무오성에 의하면 성경은 구원이나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참이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에릭슨은 이 중에서 절대 무오성과 제한적 무오성의 중간 입장인 완전 무오성을 지지한다.²⁵ 워필드 역시 완전 무오성을 지지한다.²⁶

21 Taido J. Chino, “With Two Hands: A Doctrinal Analysis of Benjamin Warfield and Karl Barth on Scripture,” (Ph. D. diss., University of Aberdeen, 2016), 1. 물론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였는지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워필드와 바르트는 상이한 성경론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Chino의 논문은 워필드와 바르트 성경론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신학자의 중요성은 그들 신학의 유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성경론의 차이점과 그 차이점에 대한 반복적이고도 대조적인 논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2 이승구, “워필드 신학의 개혁신학적 특성,” 『교회와 문화』 29 (2012), 77-110, 특히 82-86.

23 Zaspel,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574.

24 밀라드 J. 에릭슨, 『복음주의 조직신학 상』,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251-55.

25 박찬호, “밀라드 에릭슨의 점진적 창조론,” 『창조론오픈포럼』 5/2 (2011), 38-47, 특히 43.

26 A. A. Hodge and B. B. Warfield, “Inspiration,” *Presbyterian Review* 2/6 (1881), 225-260.

2. 성경 무오성은 과학적 세부사항과 정밀함을 내포하지 않는다

성경이 과학과 충돌한다고 여기는 태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서 문자주의(Biblical literalism)에서 출발한다. 성경 본문의 문자 그대로가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을 전해준다는 성서 문자주의는 성경과 과학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이안 바버(Ian G. Barbour)는 신학과 과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유형론에서 이것을 “충돌”(conflict)로 묘사한다.²⁷

워필드는 성경 본문이 과학적인 세부사항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보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찰스 워링(Charles B. Warring, 1825-1907)의 책을²⁸ 서평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을 그 당시 과학적 발견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비판했다.

워링 박사가 창세기 1장을 과학에 비추어 해석하려고 시도할 때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나치게 상세하도록 유사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창세기 내러티브를 특정 해석 방법이라는 틀에 지나치게 밀어 넣는 것처럼 보인다.²⁹

워필드가 보기에 그 당시 지질학이 발견한 세부사항들을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았다. 창세기 1장의 ‘날’을 다양한 길이의 연속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은 해석학적으로 옹호될 수 없는 관점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워필드가 인류의 연대 문제를 다루는 데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창세기의 족보가 인류의 연대 계산을 위한 역사적 “세부사항”을

27 Ian G. Barbour, *When Science Meets Religion*, 이철우 역,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서울: 김영사, 2002), 제1장.

28 Charles B. Warring, *Genesis 1 and Modern Science* (New York: Hunt & Eaton, 1892). 워링은 히브리어와 우주론 전문가였고, 창세기 1장의 ‘날’(day)을 지질학적 시대에 맞추려고 했던 “일치주의”(concordism)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Warfield, *Evolution, Science, and Scripture*, 144.

29 Warfield, *Evolution, Science, and Scripture*, 145.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류의 태고성과 단일성”(On the Antiquity and the Unity of the Human Race)라는 글에서 이 점을 상세히 기술한다.³⁰

성경의 족보가 연대기적 목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그것을 연대기 계산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반적인 사실은 반복적이고도 완전하게 제시되었다. 윌리엄 헨리 그린(William H. Green)이 *Bibliotheca Sacra* (1890년 4월)을 통해서 출간했던 기사가 대표적이다. 그에 따르면 이 족보들은 기록된 목적에 한해서 신뢰할만하다. 의도되고 계획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특히 이 족보들은 가계를 그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기록 대상이 되는 사람의 모든 후손을 완전하게 기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³¹

성경 본문에 포함된 족보는 인류의 연대기 계산을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워필드의 비판에 따르면 성경의 족보에서 연대기 계산을 위한 데이터를 찾는 행위는 적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³² 그러므로 성경 본문에서 인류의 연대기적 정보들을 도출하는 태도, 즉 성경 본문에서 과학적 세부사항들을 끄집어내려는 태도는 성경의 무오성을 지지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한 태도는 “성경의 자료를 해석하는 특정 방법에 의한 것일 뿐이며, 검토 결과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³³

그렇다면 워필드는 성경에 기록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워필드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다.³⁴ 워필드에 따르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30 Warfield, “On the Antiquity and the Unity of the Human Race,” 9:235-258. 이후부터 워필드의 전집에 포함된 글은 *Works*, 9:235-238로 인용된다. 이 글은 최초로 *Th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9 (1911), 1-25에 수록되었다.

31 Warfield, “On the Antiquity and the Unity of the Human Race,” *Works*, 9:237.

32 Warfield, “On the Antiquity and the Unity of the Human Race,” *Works*, 9:238.

33 Warfield, “On the Antiquity and the Unity of the Human Race,” *Works*, 9:235.

34 또 다른 본문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김상엽, “벤자민 워필드의 성경관과 과학관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 인간의 기원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28 (2018), 118-149를 보라.

의도된 생략이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 의도된 생략이 있는가? 그 생략은 1장 8절의 요람과 웃시야 사이에 있다. 열왕기하 8장 25절, 12장 1절, 그리고 14장 1절에 따르면 요람과 웃시야 사이에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1절을 열왕기하 23장 34절, 역대상 3장 16절에 비교해보면 요시야 뒤에 여호야김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절에서 예수님의 전체 족보가 단 두 단계로 요약되기도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워필드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두 족보의 자유로운 종합을 발견한다. 매우 축약된 두 단계의 족보가 1절에 있고, 이것을 42세대로 확장시킨 족보가 2-17절에 있다. 이 확장된 두 번째 족보를 42세대로 기록한 것은 14세대씩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암기하기 위함이다.³⁵ 따라서 이 족보의 목적은 연대기 계산에 있지 않고,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목록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다. 워필드는 동일한 원리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에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³⁶ 두 족보 역시 각각 10세대씩 나뉜 2개의 족보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렇게 10세대로 구성된 족보는 연대기 계산이 아니라 고유의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긴 세대의 연속을 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⁷

워필드만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은 아니다. 워필드와 동시대에 활동했고 워필드와 영향을 서로 주고 받았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변증신학자 제임스 오르(James Orr, 1844-1913)는 창세기 1장에서 지구의 연대기와 관련하여 과학적인 데이터를 찾는 것에 반대했다. 오르는 칼뱅의 창세기 주석을 인용하며 창세기 1장에서 천문학적 사실을 얻으려는 시도를 경고했다. 오르에 따르면 모세는 “그 당시의 상식을 갖춘 일반 사람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방식(popular style)로 기록했다.”³⁸ 또한 성경의 언어

35 Warfield, “On the Antiquity and the Unity of the Human Race,” *Works*, 9:238.

36 Warfield, “On the Antiquity and the Unity of the Human Race,” *Works*, 9:238-239.

37 워필드는 인류의 고대성에 관한 논의 이후에 인류의 단일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워필드는 인류의 단일성이 “죄와 구속의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문제라고 설명하며, 족보의 고유한 목적이 인류의 단일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암시한다(김상엽, “벤자민 워필드의 성경관과 과학관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 인간의 기원 문제를 중심으로,” 138-144).

는 “특정 문화의 대중적 특성”을 나타낸다.³⁹ 성경 본문이 현대의 과학적 세부사항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시대의 과학적 사실들과 대화할 수 있다.

성경 본문이 과학적 세부사항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성경 본문이 과학이나 역사, 지리 등의 일반적 사실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담지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은 성경이 과학 교과서와 같이 모든 세부사항들을 정밀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이다.

워필드의 설명에 따르면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 지리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해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과학이나 역사, 지리 등에 관하여 진술할 때, 성경은 분명 참된 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참됨”은 과학 교과서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참됨”과는 다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워필드의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한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성경이 그 저자들보다 훨씬 더 전지(omniscient)하다고 주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경이 전달하는 정보(information)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유형을 옷입고 있어서 모든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성경은 철학이나 과학, 인간 역사 등을 가르치기 위해 구성되지 않았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고, 성경 단어와 어조, 구성, 표현양식 등에는 인간적 실수의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겨 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저자들이 그 자체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원천과 방법에 자신들의 지식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지식과 판단들은 여러 면에서 망설이거나 결함이 있거나 심지어 오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항상 간직했던 역사적 신앙(historical faith)에 따르면 성경의 모든 종류의 확증(affirmations)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원본의 말씀이 확인되고,

38 James Orr, “Science and the Christian Faith,” in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 eds. R.A. Torrey and A.C. Dixon, 4 vols. (1917. Repr. Grand Rapids: Baker, 1980), 1:334-347.

39 James Orr, “The Early Narratives of Genesis,” in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 12 vols. (Chicago: Testimony Publishing Company, 1910-15), 6:85-97, 특히 94. 이 책은 처음에 12권으로 출간되었고 1917년에 4권으로 재출간되었다.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도와 의미가 해석될 때, 그것이 영적 교리나 의무이든, 물리적이거나 역사적 사실이든, 심리적이거나 철학적 원칙이든,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진술의 정밀함(exactness)과 정확함(accuracy)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정밀함은 세부사항들을 철저히 제시하는, 절대적 실재성(literalness)을 특징으로 갖는 것으로, 성경은 결코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반면에 정확함은 그 진술이 지지하기로 의도한 사실들이나 원칙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보장한다. 교회의 교리가 성경 원문에 있는 모든 진술에 관해서 고수하는 것은 정밀함과 다른 바로 이 정확함이다.⁴⁰

워필드와 핫지(A. A. Hodge, 1823-1886)에 따르면 성경 본문에는 분명 오류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의 무오성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본문에 대해 과학 교과서의 정밀함이 아니라 정확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정확함이란 성경 저자가 진술하려고 의도했던 사실이나 원칙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⁴¹

폴 헬름(Paul Helm)은 워필드 성경론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는 글에서 이 점을 지적한다. 워필드의 영감론이 기계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면서, 성경 저자들에게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이 무오한 진리를 말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헬름에 따르면 성경 저자 “한 개인에게 오류가 있고, 그의 사상이 인간 오류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해한 방식으로,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서” 성경 저자 자신의 특성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무오한 진리를 말할 수 있다.⁴²

3. 성경 무오성의 핵심은 올바른 해석과 장르 이해이다

위에서 다룬 두 가지의 성경관은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해석학의

⁴⁰ Hodge and Warfield, “Inspiration,” 237-38.

⁴¹ 바로 여기에서 성경 본문에 대한 주해와 해석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⁴² Paul Helm, “B. B. Warfield’s Path to Inerrancy: An Attempt to Correct Some Serious Misunderstanding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2 (2010), 23-42, 특히 39.

필요성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성경 본문이 과학적 세부사항을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 성경 무오성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의 정밀함이 아니라 정확함을 의미한다는 점은, 해당 본문에 담긴 저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과제로 이어진다.

올바른 해석학의 필요성은 위에서 인용된 워필드의 글에서도 언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성경 본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무오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도와 의미가 해석될 때” 오류가 없다.⁴³ 성경 본문이 과학이나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때, 그 자체가 무오한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의 “본래적 의도와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때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워필드의 성경 무오성에서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과 주의 깊은 주해는 중요한 핵심 원리로 작동한다.⁴⁴

워필드는 바울의 “공식 가르침”과 “공식 가르침의 영역 밖의 문제들”을 구분한다.

사도들의 공식적인 가르침 말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사도들의 무오성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신의 가르침의 영역 밖에 있는 특정 문제들과 관련하여 그 당시 일반적인 견해들을 공유했다는 가정도 견지될 수 있다. 가령, 지구의 형태나 지구와 태양의 관계와 같은 문제가 그렇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문제들을 부수적으로 언급할 때 사용하는 언어 형식을 보면 그러한 가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⁵

더 나아가서 워필드는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사실들”을 활용하는 것이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과 대치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 오히려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본문에 대한 우리의 해석적 과정과 결론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43 Hodge and Warfield, “Inspiration,” 238.

44 Helm, “B. B. Warfield’s Path to Inerrancy,” 38.

45 Warfield, “The Real Problem of Inspiration,” *Works*, 1:196-97.

반대로 우리는 그 관찰된 사실이 기록된 본문에 충분하고도 가장 유용한 빛을 모든 영역에서 비춘다는 것을 단순하게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이는 창세기 1장의 창조 내러티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학이 세상의 구조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이해하려는 첫 발을 내디딜 때, 창세기 1장은 적절하게 이해되어야 할 유일한 출발점이다. ... 하지만 사실들을 연구하여 얻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해석 과정(exegetical processes)을 교정하고 해석적 결론들(exegetical conclusions)을 수정하는 것과, 성경 구조에 관한 사실들로 성경의 가르침 그 자체를 해석학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변경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다. ... 우리는 해석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하여 순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부분에서 해석의 도움을 추구할 수 있다.⁴⁶

워필드에 따르면 창세기 1장의 내러티브는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해석적 틀을 제공한다. 창세기 1장이 우주와 자연에 대해 과학 교과서와 같은 수준의 정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않는다 하더라도, 창세기 1장은 과학을 통해 피조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출발점”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가지고 본문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이해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97-1878)는 성경 본문과 과학적 사실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성경 본문은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과학적 사실은 성경 해석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과학은 여러 문제에 있어서 교회에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성경은 수 세기 동안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체계로 이해되고 설명되었다. 이제 성경은 그 언어에 해를 가하지 않고도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로 설명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지구가 수 천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믿어왔다. 만일 지질학자들이 지구가 수만 세기(수백만 년) 동안 존재했다고 최종적으로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창세기 1장은 그 사실들과 완전히 조화

46 Warfield, “The Real Problem of Inspiration,” *Works*, 1:206.

를 이룰 수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과학의 최종적인 결과가 성경 첫 페이지에 표현되어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⁴⁷

모세 실바(Moisés Silva)는 구(舊)프린스턴 신학교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이어지는 성경 해석의 전통을 설명하며, 워필드의 성경 무오성에서 해석학의 중요성을 지적한다.⁴⁸ 실바는 워필드의 성경 무오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성경 저자들이 실제로 확증하거나 가르치려는 바가 아니므로,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본문이 실제로 가르치려는 바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실바는 이것은 “저자의 목적이나 의도”(authorial purpose or intention)라고 표현한다.⁴⁹

실바는 워필드를 비롯한 구프린스턴 신학자들의 해석 원리가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연속적인 것임을 밝힌다.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대한 칼뱅(Jean Calvin)의 해석을 사례로 제시한다.⁵⁰ 바울은 우상숭배를 경계하며 우상숭배로 인해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23,000명으로 적고 있다. 여기에서 인용되는 구절은 민수기 25장 9절이다. 그런데 민수기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 수는 24,000명이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구절들이 성경 안에 존재할 때, 성경 무오성은 어떻게 변호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칼뱅은 이렇게 답한다. “사람을 정확하게 계수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대략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 … 모세는 상한선을, 바울은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⁵¹

성경의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필수적인 일은 본문의 장르를 이해하는 일이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현대 과학과의 조화를 시도할 때, 장르에

⁴⁷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3 vols. (New York: C. Scribner and Company, 1872-73), 1:171.

⁴⁸ Silva, “Old Princeton, Westminster, and Inerrancy,” 77-81.

⁴⁹ Silva, “Old Princeton, Westminster, and Inerrancy,” 80.

⁵⁰ Silva, “Old Princeton, Westminster, and Inerrancy,” 82.

⁵¹ John Calvin,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61), 208-9; Silva, “Old Princeton, Westminster, and Inerrancy,” 83에서 재인용.

대한 이해 없이 모든 성경 본문이 동일한 수준의 명제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 본문의 각기 다른 장르를 무시한 채, 모든 진술에서 동일한 수준의 명제들을 도출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워필드를 비롯한 구프린스턴 신학자들의 성경론을 비판하는 신학자들은 이러한 명제주의적 태도를 워필드로부터 찾는다.⁵² 헬름은 이러한 비판의 전형으로 맥고완(McGowan)을 제시한다. 맥고완에 따르면 구프린스턴 신학자들은 성경 무오성을 성경의 명제적 진술과 관련해서 생각했다. 맥고완은 워필드와 같은 성경 무오론자들이 성경을 “명제”로 환원시키고 신학자들을 위한 “데이터”로 축소시킨다고 비판했다.⁵³

하지만 워필드의 글을 직접 읽어보면 워필드가 성경 본문의 장르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워필드의 글에서 “장르”(genre)라는 어휘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워필드는 장르를 결정짓는 문체나 어휘, 표현 양식 등과 함께 성경의 “현상들”(phenomena)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⁵⁴

우리가 논의하는 교리에 따르면 성경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지만 또한 모든 말이 인간의 말이라는 것도 정당하게 참이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축자영감을 반대하는 신약성경의 현상들로부터 생겨나는 상당한 양의 반대들을 단번에 치워 버린다. 문체나 말투, 진술 방식, 논증 방식에 있어서 인간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흔적도 그 문제와 관계없다. 그 책은 인간 저자의 수고를 통해 나왔고, 그들의 수작업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출발점에서 이것을 인정한다. ... 따라서 성령이 “해가 진다”고 말할 수 있거나 로마 제국을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박할 수 없다. 한 구절의 통용되는 의미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말하면서 잘 이해했다면, 성령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⁵⁵

52 Helm, “B. B. Warfield’s Path to Inerrancy,” 35.

53 Helm, “B. B. Warfield’s Path to Inerrancy,” 29-30.

54 워필드가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문체나 어휘 등의 현상들을 장르의 문제로 사용한다는 점은 헬름도 지적한다. Helm, “B. B. Warfield’s Path to Inerrancy,” 40.

55 Warfield, “Inspiration and Criticism,” *Works*, 1:419.

워필드의 설명에 따르면 성경 본문은 장르에 따라 서로 다른 현상들을 보인다. 이는 각 본문의 문체나 말투, 진술 방식, 논증 방식 등을 통해서 강화된다. 따라서 성경 본문이 일반적인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지리적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진리를 진술할 때, 그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성경 본문의 장르 문제로부터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워필드 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비난은 누가복음 3장 1절의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째 해에”라는 구절에 역사적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워필드는 이 구절에 난해함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입증된 오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⁵⁶ 디베료 즉 티베리우스 황제의 재위 기간이 부정확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워필드의 원칙에 따르면 누가복음 본문은 역사적 사료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다. 누가복음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재위 기간을 제시하는 이유는 세속사의 맥락에, 세례 요한의 등장이라는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이 정확한 연대 산출에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 이후 밝혀진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Augustus)와의 공동통치 기간을 재위 원년으로 보지 않고, 아우구스투스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15년째 해”라는 문구에는 오류가 없다.⁵⁷

4. 성경 영감에서의 협력 개념은 하나님과 제이원인의 협력을 암시한다

워필드가 신앙과 과학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또 다른 핵심 원리는 “협력”(concurus) 개념이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워필드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을 인정하면서도 과학에 대해 진지하고도 열린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다.

먼저, 워필드는 “협력” 개념을 성경론에서 적용했다. 워필드가 영감의 가장

⁵⁶ Hodge and Warfield, “Inspiration,” 247.

⁵⁷ Hodge and Warfield, “Inspiration,” 247.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협력”은 성경의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를 다루는 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워필드는 “협력” 개념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이 신적인 동시에 인간적임을 설명한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의 신적 요소나 인간적 요소만을 강조하려는 양극단이 존재했다. 성경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경향은 성경 안에 있는 인간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했다. 이것은 인간을 ‘받아쓰기 하는 기계’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즉 기계적 영감론으로 이어졌다.⁵⁸ 워필드 시대에는 합리주의로 인해서 성경의 인간적 요소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합리주의는 성경의 기원과 특성을 순전히 인간적인 것으로 보았다.⁵⁹ 합리주의자들에 의하면 “성경을 만든 것은 인간이었고, 인간 혼자였고, 그래서 성경은 순전히 인간적인 책이고, 신적 행위와 말씀에 관한 인간의 보고를 담고 있을 뿐이다.”⁶⁰

워필드는 “협력” 개념을 사용해서 성경의 신성과 인간성 모두를 확보하고자 했다. 워필드에 따르면 “‘협력’ 개념 말고는 영감의 방법에 관한 다른 개념이, 영감의 신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성경의 신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⁶¹

이 관념의 핵심 원칙은 성경 전체가 그 안에 침투하는 신적 활동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저자들의 활동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이 신적 활동과 인간적 활동의 공동 산물(joint product)이 된다. 모든 지점에 두 종류의 활동이 퍼져있다. 두 활동은 함께 조화롭게 일하여 글을 저술한다. 그 글은 여기에서는 신적이고 저기에서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지점, 모든 언어, 모든 사항에 있어서 신적이고 인간적이다. 그러므로 이 관념에 따르면 성경 전체는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 노력의 자유로운 산물로 인정된다. 그와 동시에 성경 전체는 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발화로, 즉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이 저자인 것으로 인정된다.⁶²

58 Warfield, “Divine and Human in the Bible,” *SSW*, 2:543.

59 Warfield, “Divine and Human in the Bible,” *SSW*, 2:544.

60 Warfield, “Divine and Human in the Bible,” *SSW*, 2:545.

61 Warfield, “Divine and Human in the Bible,” *SSW*, 2:546.

이처럼 워필드는 “협력” 개념을 통해서 성경의 신적 영감과 권위를 주장하면서도, 인간이 단순한 기계가 아님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활동 안에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워필드는 이러한 “협력” 개념을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에도 적용한다. 성경 영감에서 신적 특성과 인간적 특성이 협력하듯이, 자연세계 안에서 신적 활동과 자연적 과정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⁶³ 워필드에게 “협력” 개념은 영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과 종교 사이의 논쟁과 같은 신학적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모델로 작동했다.⁶⁴

워필드는 “협력” 개념과 칼뱅의 제이원인에 대한 존재론을 연결시킨다. “만물의 제이원인”(prima causa ominum)으로서의 하나님은 제이원인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보는 질서정연한 세계”를 있게 하셨다.

우리가 이 제이원인들에 대해 제시하는 설명은 존재론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이원인들의 존재와 지속성,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의 문제이고, 제이원인들이 그것들의 보존자이자 감독자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문제이다. 제이원인들에 관한 칼뱅의 존재론은 간단히 말해서 협력에 관한 매우 순전하고도 완전한 교리이다. 칼뱅에 의하면 발생하는 모든 것은 제이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적인 통치로부터 기인한다.⁶⁵

62 Warfield, “Divine and Human in the Bible,” *SSW*, 2:547.

63 Hendrik van den Belt, “Autopistia: the Self-Convincing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Ph.D. dissertation, Leiden University, 2006), 224.

64 Jeffrey A. Stivason, “From Inscrutability to Concursus: Benjamin B. Warfield’s Theological Construction of Revelation’s Mode From 1880 to 1915” (Ph. 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13), 12.

65 Warfield, “Calvin’s Doctrine of the Creation,” *Works*, 5:305. 워필드가 “칼뱅의 창조론”에 관하여 1915년에 글을 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무렵은 워필드가 고전적인 형태의 진화론을 버린 시기로 알려져 있다. 워필드가 고전적인 다윈주의를 버린 것과 일종의 진화 개념을 수용한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암시한다. 이에 대한 마크 놀의 지적을 보려면, Noll, *Evolution, Scripture, and Science: Selected Writings*, 39.

칼뱅에 따르면 만물의 제일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태고의 혼돈 덩어리”(primal indigested mass)를 창조하셨다. 이 “혼돈 덩어리”로부터 연속적인 변형이 발생했고 모든 유형의 생명으로 변형되어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세계가 생겨났다. 워필드는 바로 이 전체 과정을 “협력” 개념으로 이해했다.

마크 놀 역시 성경 영감에서의 “협력”에 대한 워필드의 확신이 자연 세계에서 물질적 요소와 신적 요소가 함께 설명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라고 보았다.⁶⁶ “협력”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성경에 대한 이해, 자연과 과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핵심이었다. 워필드는 “협력” 개념을 통해서 성경 영감과 창조, 섭리, 자연 세계에서 두 가지 요소(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⁶⁷

이상으로 워필드의 성경론이 갖는 해석학적 함의를 다섯 가지 범주에서 살펴 보았다. 워필드의 성경 해석 원칙에 따르면 우리가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 지성의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성경 무오성과 현대 과학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의 “입증된 사실”과 적절한 “성경 해석” 사이에 실제적으로 모순을 일으키거나 충돌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과학자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와 무오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학문 분야에서 성실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크리스천 청년들은 개혁신학적인 성경 무오성을 고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반은총이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 문자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형태의 성경론으로 인해서 과학을 포함한 일반은총의 영역들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이들에게, 워필드의 성경론이 성경적이고도 안전한 신앙적 틀을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

66 Warfield, *Evolution, Scripture, and Science*, 51. 또한 마크 놀이 이 책에 대해 작성한 서문 중에서 37-43면을 보라.

67 David Livingstone and Mark Noll, “B. B. Warfield: A Biblical Inerrantist as Evolutionist,” *Isis* 91 (2000), 290.

Ⅲ. 나가는 글

워필드는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영감과 권위, 무오성을 주장하면서 (그 당시의 진화론으로 대변되는) 과학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워필드의 신학이 성경과 진화론, 더 나아가서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워필드의 원칙에 따르면 성경의 무오성을 지지한다고 반드시 성경 본문에서 과학적인 세부사항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성경 문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방식이었다. 그렇다고 성경이 과학이나 역사, 지리 등에 대해 진술할 때, 그것이 오류를 포함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경이 과학이나 역사, 지리 등의 일반 진리에 대해 진술할 때, 그것은 성경 본문이 의도하는 수준에서의 무오성을 내포한다. 성경 무오성은 과학 교과서와 같은 정밀함을 요구하지 않고 정확함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이 과학 등에 대해 진술할 때, 그것이 실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올바른 해석학이 필요해진다. 성경 무오성은 성경 본문의 진술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성경 본문의 장르를 이해하는 것이다. 워필드 시대에 성경 본문의 장르에 대한 논의가 크지 않았기에 워필드가 장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문체나 어휘, 표현양식, 현상 등의 개념을 통해 워필드는 장르 파악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워필드는 성경 영감에서의 “협력” 개념을 과학에 대한 이해에 적용한다. 성경의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협력” 개념을 통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자연세계의 자연적 과정이 협력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통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성경의 초자연적 영감과 무오성을 강력하게 견지하더라도 자연적 과정에 대한 과학의 발견이나 설명에 반드시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과학은 둘 다 중요한 부분
임에 틀림없다. 100년 전 워필드가 성경과 진화론의 관계에 대해 고민했듯이,
우리는 앞으로 다양한 과학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과학적
발견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성경적으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과학적 발견들을 이해하느냐에
있다.

이 점에서 워필드가 성경과 과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준 원칙들을
재고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우리는 성경과 과학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개혁신학적인 성경론에 입각하여 과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학적 유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차문헌

- Warfield, Benjamin B. *Studies in Theology*. In *The Works of Benjamin B. Warfield*. 10 Vol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 Warfield, Benjamin B. *Revelation and Inspiration*. In *The Works of Benjamin B. Warfield*. 10 Vol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 _____. *Calvin and Calvinism*. In *The Works of Benjamin B. Warfield*. 10 Vol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1.
- _____. *Evolution, Scripture, and Science: Selected Writings*. Eds. Mark A. Noll and David N. Livingstone. Grand Rapids: Baker Books, 2000.
- _____.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2 Vols. Ed. John E. Meeter.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2001.

2차문헌

- Barbour, Ian G. *When Science Meets Religion*. 이철우 역.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서울: 김영사, 2002.
- Belt, Hendrik van den.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Truth and Trust*. Leiden: Brill, 2008.
- _____. "Autopistia: the Self-Convincing Authority of Scripture in Reformed Theology." Ph. D. Dissertation, Leiden University, 2006.
- Brink, Gijsbert van den. "On Certainty in Faith and Science: The Bavinck-Warfield Exchange." *Bavinck Review* 8 (2017), 65-88.
- Calvin, John. *The First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 Grand Rapids: Eerdmans, 1961.
- Chino, Taido J. "With Two Hands: A Doctrinal Analysis of Benjamin Warfield and Karl Barth on Scripture."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Aberdeen, 2016.
- Erickson, Millard J. 『복음주의 조직신학 상』. 신경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Helm, Paul. "B. B. Warfield's Path to Inerrancy: An Attempt to Correct Some Serious Misunderstanding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2 (2010): 23-42.
-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3 Vols. New York: C. Scribner and Company, 1872-73.
- Livingstone, David and Noll, Mark A. "B. B. Warfield: A Biblical Inerrantist as Evolutionist." *Isis* 91 (2000).
- McGrath, Alister E. *Narrative Apologetics*. 홍종락 역. 『포스트모던 시대, 어떻게 예수를 들려줄 것인가』. 서울: 두란노, 2020.
- Moreland J. P., Stephen Meyer, Christopher Shaw, and Wayne Grudem. Eds. *Theistic Evolution: A Scientific,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Critique*. 소현수 외 공역. 『유신 진화론 비판』. 총2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Noll, Mark A. *The Princeton Theology 1812-1921: Scripture, Science, and Theological Method from Archibald Alexander to Benjamin Breckinridge Warfiel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 Orr, James. "Science and the Christian Faith." In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 Eds. R.A. Torrey and A.C. Dixon. 4 Vols. Grand Rapids: Baker, 1980.
- _____. "The Early Narratives of Genesis." In *The Fundamentals: A Testimony to the Truth*. 12 Vols. Chicago: Testimony Publishing Company, 1910-15.
- Silva, Moisés. "Old Princeton, Westminster, and Inerrancy." *B. B. Warfield: Essays on His Life and Thought*. Ed. Gary L. W. Johnson.

- Philipsburg, NJ: P&R, 2007.
- Stivason, Jeffrey A. "From Inscrutability to *Concursus*: Benjamin B. Warfield's Theological Construction of Revelation's Mode From 1880 to 1915." Ph. D. Dissertatio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2013.
- Unsworth, Amy and Ecklund, Elaine Howard. "Evangelicals, Evolution, and Inerrancy: A Comparative Study of Congregational Boundary Work."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36 (2021), 199-221.
- Vanhoozer, Kevin J. *First Theology*. 김재영 역. 『제일신학』. 서울: IVP, 2017.
- Warring, Charles B. *Genesis 1 and Modern Science*. New York: Hunt & Eaton, 1892.
- Wells, David F. Ed.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박용규 역·해제. 『개혁주의 신학: 현대 개혁주의의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 Witham, Larry. *By Design*. 박희주 역. 『생명과 우주에 대한 과학과 종교 논쟁, 최근 50년』. 서울: 혜문서관, 2008.
- Zaspel, Fred G. *Warfield on the Christian Life: Living in the Light of the Gospel*. Illinois: Crossway, 2012.
- 이승구. "워필드 신학의 개혁신학적 특성." 『교회와 문화』 29 (2012), 77-110.
- 박찬호. "밀라드 에릭슨의 점진적 창조론." 『창조론오픈포럼』 5/2 (2011), 38-47.
- 신익상. "개신교인의 신앙관과 생태위기에 관한 인식." 『기독교사상』 731 (2019), 8-25.
- 하민수. "진화개념의 역사에 근거한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진화개념 수준 비교."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7/4 (2017), 659-668.
- 윤신일·오세일. "한국 근본주의 개신교인의 '4대 혐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5/1 (2021), 39-88.

[Abstract]

**Benjamin Warfield's Doctrine of the Bible
: Focused on the Hermeneutical Implications in the Age
of Science**

Sang Yeup Kim

(Baekseok Arts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Systematic The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Benjamin B. Warfield understoo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ble and science, and to derive what theological implications such a position has for the Reformed theology today.

According to Warfield's principles, supporting the infallibility of the Bible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scientific details must be found in the text of the Bible. The infallibility of the Bible doesn't require the same exactness as science textbooks, but requires accuracy. Therefore, when the Bible text states about science, etc., correct hermeneutics is needed to see what the text actually mean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text, it is necessary to find the meaning God wanted to give through the Bible authors. Another important point in this process is to understand the genre of the Bible text. Warfield doesn't directly use the term 'genre', but implies the importance of grasping the genre through concepts such as style, vocabulary, and phenomenon. Finally, Warfield applies the concept of "concursum" in the inspiration of the Bible to understanding science. Just as the divine and human elements of the Bible can be fully understood through the concept of "concursum," it was considered that God's supernatural power and

natural process of the created world can contribute to God's purpose and government through the concursive process.

Warfield's pos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ble and evolutionary theory provides an important principle for u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ble and science today. As Mark Noll pointed out, Warfield's understanding of the Bible and evolution shows that today we can consider a "much more satisfactory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ology and science. Through Warfield's discussion in this paper, I'd like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approaching science with an open attitude while adhering to the Reformed doctrine of the Bible.

Key Words: Benjamin Warfield, Doctrine of the Bible, Infallibility, Science, Evolutionism, Hermeneutics

